

롯데바이오, 송도시대 첫 삽... “CDMO 글로벌 톱10 도약”

송도바이오캠퍼스 1공장 착공식
2030년까지 3개 플랜트 건설
신동빈 “세계 주도권 선점 총력”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강경성 산업자원통상자원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현재 ‘바이오엔젤릭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 등 4대 주제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이 중 바이오엔젤릭스 부분의 핵심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송도에서 시작하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여정은,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 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착공식에서 (왼쪽부터)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경성 산업자원통상자원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시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송도 11공구 KI20 블록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1·2·3공장을 각각 2025년, 2027년, 2030년 준공할 계획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4년 전체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송도 1·2·3공장은 각 공장마다 12만L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까지 더해지면 2034년 기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역량은 40만L에 달하게 된다.

최근 창립 2주년을 맞이한 롯데바이

오로직스는 그동안 ‘인수’와 ‘설립’이라는 두 트랙 전략을 펼쳐 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12월 미국 뉴욕 동부 시러큐스에 위치한 BMS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CDMO 시설로 전환했다.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는 항체약물 접합체(ADC)를 생산하는 설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통해 회사 창립 8개월 만에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 진입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CDMO 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1공장에는 고역가 의약품 생산을 위한 ‘다이트플렉스 퀴드 시스템’이 추가로 마련된다. 이는 3000L 바이오리액터를 총 8대 설치하는 것이다. 이중 유형으로 4세트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설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고농도 제품을 배양·정제할 수 있는 맞춤형 배양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세포 배양 공정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폐물은 제거하고 영양분은 공급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엔마이네스 윈 퍼퓨전’도 도입된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원가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송도 메가 플랜

트와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협업도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가 입주 업체의 송도 유입을 일으켜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 수도권 인프라,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등 여러 이점을 지닌 송도 국제도시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 계획 실현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분석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 인수

지분 80% 확보, 향후 100% 인수
정기현 부사장 “시흥 사업 본격화”

LG전자가 스마트홈 분야 선도기업 ‘앳홈’을 인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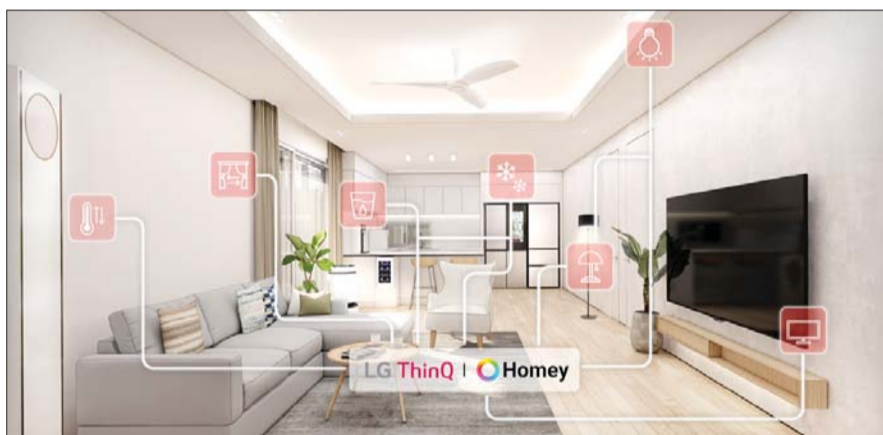
LG전자가 가정 내 가전제품과 센서·조명 등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분야 선도기업을 인수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에 수많은 기기 연결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엔스헤데(Enschede)에 본사를 둔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Athom)’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20%도 향후 3년 내 인수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와 생성형AI를 결합한 ‘AI홈’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을 이해하고 최적의 공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특히 AI홈 구현에 필요한 ‘확장성’을 단숨에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앳홈은 지난 2014년 설립 이래 자체 개발한 허브와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2023년에는 미국, 캐나다까지 진출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호미 프로(Homey Pro)’는 5만여종의 가전 및 IoT기기를 연결한다. 와이파이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Athom)사를 인수해 개방형 스마트홈 생태계와 폭넓은 가전 및 IoT기기 연결성을 확보했다. 사진은 시흥에서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스마트커피, 스마트조명 등 다양한 가전과 IoT기기가 연결된 모습. /LG전자

(wi-fi), 블루투스(Bluetooth), 지웨이브(Z-Wave), 매터(Matter), 쓰레드(Thread)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 개방성이 높다.

LG전자는 또 앳홈 인수로 타사 기기와 서비스까지 통합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 사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LG전자는 인수 후에도 앳홈의 운영체제와 브랜드는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사업 및 연구개발 역량이나 플랫폼 관점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도 앳홈의 성장동력과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LG전자 정기현 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은 “앳홈 인수는 AI홈 사업의 초석”이라며 “앳홈 특유의 개방형 생태계와 연결성을 바탕으로 외부 연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AI가전과 시너지를 통해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

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은 2023년 812억800만달러에서 2028년 2602억3500만달러(361조원)로 연평균 26.23% 성장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제조기업을 넘어 수많은 기기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AI홈을 궁극적으로 상업공간이나 모빌리티 같은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주완 LG전자-CEO(최고경영자)는 “LG전자는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인텔리전트 스페이스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등 주력사업 호조

글로벌 승용차 타이어 수요 증가
증권사, 향후 2년간 실적개선 전망

HS효성의 효성첨단소재의 실적상승이 기대된다. 효성첨단소재의 주력사업인 타이어코드와 탄소섬유 부문의 업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의 주력 제품인 타이어코드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의 산업소재 부문은 타이어코드, 스틸코드, 탄소섬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장 가동률도 상승세를 띄고 있다. 지난 2022년 1분기 공장 가동률은 92.72%로 집계됐다. 이후 2022년 연간 가동률은 88.82%, 2023년 81.98%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은 88.5%까지 늘었다.

증권사에서는 효성첨단소재가 향후 2년간 실적 성장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86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하며, 영업이익도 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해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71.7% 늘어난 2961억원으로 예측된다.

전방 타이어 수요도 올해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승용차 타이어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유럽을 중심으로 OE(신차용)타이어 수요가 회복한 데 이어 글로벌 교체용 타이어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또한 전방시장 수요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구환신은 구형 자동차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코드 수출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타이어코드 가격은 최근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2분기 전분기 대비 3% 상승했다. 6월 가격은 올해 초보다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사는 탄소섬유를 앞세워 신소재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은 향후 연 10~20%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섬유 관가 역시 2분기에 반등세를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판가는 올 1분기 하락을 지속했으나 올 2분기에 전분기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중국의 탄소섬유 증설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됐으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는 지난 2023년 연산 9000톤이 생산됐다. 오는 2028년까지 2만4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베트남에 법인(Hyosung Vina Core Materials Co., Ltd)을 세우고 528억원을 투자하는 등 증설 작업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서현정 기자